

자연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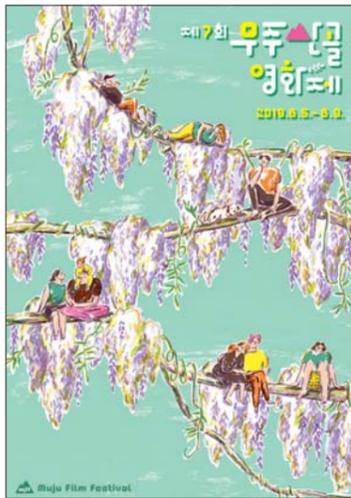
무주산골영화제 포스터 공개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포스터는 흐드러지게 꽃이 핀 등나무 위에 앉아 휴식하며 영화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표현했다고 19일 밝혔다.

메인 컬러로 사용된 민트 색감과 재치있게 그려진 포스터 속 인물들은 영화제로 인해 활기를 띠는 싱그러움 초여름 무주의 모습을 재미있게 잘 담아냈다.

특히 무주산골영화제의 여유와 낭만 그리고 영화제만이 선사할 수 있는 영화적 상상력을 위트있게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포스터를 만들었다.

올해 공식 포스터에 제작에 참여한 김효은 작가는 실크 스크린을 비롯한 판화기법을 회화와 접목해 일상의 이야기를 위트 넘치게 표현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이다.



그는 따뜻한 색감과 유쾌한 그림으로 많은 이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과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를 오가며 전시회 및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김 작가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열리는 무주 등나무 운동장의 등나무 꽃을 모티브로 삼아 숨결이 풍선처럼 등나무 꽃 위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을 그렸다”면서 “이를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여유 속에 영화제가 어우러져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는 “그간 포스터와는 달리 영화제가 주는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이번 포스터는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영화제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무주 등나무 운동장과 덕유산 국립공원 등을 비롯해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원의 한국 문화 확산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태권도진흥재단 · 세종학당재단 · 아시아발전재단, 3자 업무협약 체결... 신규 사업 발굴 · 상호 지원 등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외국인들에게 태권도와 한글·한식 등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태권도진흥재단·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세종학당재단(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과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 아시아발전재단 조남철 상임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문화, 교류를 만나다 K-STAY(가칭)'를 공동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3자간 협력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상호 지원과 태권도와 한글·한식 등 한국 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홍보채널 연계, 기관 간 핵심 역량 연계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상호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문화, 교류를 만나다 K-STAY(가칭)'를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2019~2020년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에서 진행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국 공관 직원 및 가족, 유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태권도와 한글 캘리그래피, 한식 등의 우리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진행해 한국을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에서 태권도진흥재단·세종학당재단·아시아발전재단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태권도와 한글, 한식 등 우리 문화가 더 많이 알려지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이 한국 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용 / 서울시 마포구 소재)과도 이날 오후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태권도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 우리 문화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무주=전문선 기자

‘멘토링’으로 차세대 여성 인재 양성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청년 여성 멘토링’ 참여 멘티 모집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차세대 리더스쿨 2019 청년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멘티를 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 청년 여성 멘토링은 도내 각 분야의 최고 여성리더(멘토)가 청년 여성(멘티)과 그룹을 이루고,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병행 멘토링을 통해 멘티의 실질적인 경력개발과 인생설계를 지원하여 차세대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청년층의 직장 선호도를 파악하여 건축·공공·금융·중소기업 등 4개 분야 여성리더 5명을 멘토로 선정하였으며, 멘토 1인 당 멘티 5명 내외가 연결되어 멘토가 근무하는 직장방문(직업체험), 멘토 강의·코칭, 네트워킹(MT 등), 진로찾기·자기개발 등 다양한 형식의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 청년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은 4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그룹별 자율 멘토링을 실시하고, 멘티로 선정되면 그룹 멘토링 이외에도 취업 준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접 이미지메이킹이나 메이크업 특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센터는 원활한 멘토링 활동을 위하여 그룹별로 일정 금액의 멘토링 활동비를 지원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멘토링 그룹을 선정하여 표창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애 센터장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 되었다고는 하나 남성보다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취약하고 고위직



의 여성 비율도 현저히 낮아 청년 여성들의 역할 모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취업 준비 단계에서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멘토의 성공 비결 등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멘티 참가 신청은 전북지역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jbw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문의 전화는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사업팀(254-3813)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 아카데미 개최... 200명 회원제로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선비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전주박물관의 '조선 선비문화'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선비란 조선 사회에서 학문을 닦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어질고 학식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 선비문화 아카데미의 부제는 '우리가 알았던 선비, 우리가 몰랐던 선비'다. 선비의 역사, 선비정신의 의의 등 전반적인 선비문화를 알 수 있도록 격주에 걸쳐 8인의 학계 전문가가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200명 회원제로 열리는 이번 박물관 선비문화 아카데미의 첫 강연은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의 김병일 원장이다.

22일 국립전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의 제목은 '오늘의 리더와 선비정신'이다. 선비정신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비문화와 관련된 조사·연구·자료수집·전시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아카데미 역시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있으며,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비문화 아카데미 강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일정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